

ESG, 경영전략과 조세회피*

김용기** · 박성욱*** · 김서현****

〈요 약〉

최근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까지를 고려한 ESG경영이 점차 중요시 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경영자가 경영전략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ESG와 경영전략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원에서 제공하는 ESG등급과 Miles and snow(1978, 2003)의 연구에 따른 선도형(prospector) 및 방어형(defender) 경영전략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ESG등급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ESG등급은 조세회피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보인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와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인다. 또한 ESG등급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사회적 책임(S)에 있어 조세회피에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이미지 등을 중시하기 때문에 조세회피를 줄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경영전략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선도형 전략은 조세회피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어적 전략은 조세회피에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보인다. 나아가 추가 자금조달 가능성이 높은 그룹의 경우 선도형 전략이 조세회피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친다. 셋째, ESG등급과 경영전략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추가로 ESG등급을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ESG등급이 높은 집단에서는 선도형 경영전략이 조세회피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보인다. 이는 ESG경영을 실행하는 기업일지라도 선도형 경영전략을 채택하였을 때 조세회피 성향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ESG등급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기존 선행연구 결과는 다르게

* 본 연구는 제1저자의 박사학위논문과 2022년 한국세무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대폭 수정 및 보완한 것입니다. 본 학위논문 심사위원장님을 포함한 심사위원님들과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데이터를 제공해주신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도 감사드립니다.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회계·세무학과 박사, 세무사, tax7153@naver.com, 주저자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회계·세무학과 교수, sopark@khu.ac.kr, 교신저자

**** 경희대학교 대학원 회계·세무학과 박사과정, ksh2019@khu.ac.kr, 공동저자

논문접수일 2022년 7월 16일 1차수정일 2022년 10월 9일 게재확정일 2022년 10월 20일

나타나기에 이를 비교하는 측면에서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경영전략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이외에도 자금조달과 관련된 경영전략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므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당국과 규제기관은 경영자의 조세회피 성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의 공헌점이 있다.

〈주제어〉 ESG, 경영전략, 선도형, 방어형, 조세회피

I. 서 론

기업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재무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성과인 ESG의 요소들을 포함한 경영이 필요하다. ESG경영은 기업의 환경적 요소를 관리하고 사회적 책임을 갖고 경영활동을 하며 기업의 지배구조를 잘 관리하는 것이다. 기업의 경영전략 유형을 살펴보면 Miles and snow(1978, 2003)는 경영전략을 선도형(prospector)과 방어형(defender) 전략으로 구분한다. 특히 선도형 전략은 신제품의 개발, 시장의 개척을 중시하며 다양한 제품 또는 기술을 개발하고 마케팅과 연구개발을 강조한 전략이므로 경영전략은 지속 가능한 경영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요소 중 ESG와 경영전략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표본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지만 경영전략을 측정함에 있어 5년간의 평균값에 의해 구해지기 때문에 실제 연구 표본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먼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원에서 평가한 ESG등급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ESG등급과 각각의 요소별 등급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ESG 중 더 중시하는 요소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선도형 전략과 방어형 전략을 구분하여 각각의 전략이 실제 조세회피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경영자의 경영전략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추가 자금조달 가능성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의 경우 각각 경영전략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ESG등급과 경영전략의 상호작용변수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ESG등급을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으로 구분하여 경영전략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ESG등급이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각각의 부문별 상황 및 통제된 상황에서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Yoon et al.(2021)은 ESG점수는 조세회피에 음(-)의 영향을, 반면에 정현아·유순미(2021)는 ESG경영은 조세회피에 양(+)의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Yoon et al.(2021)과 정현아·유순미(2021)의 서

로 다른 연구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ESG등급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최규담·김갑순·유현수(2015)는 Bentley et al.(2013)의 경영전략 측정법을 사용하여 경영전략이 조세회피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더 나아가 자금조달 관련한 경영전략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는데 선행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본 연구의 가설 1에 대한 분석결과는 Yoon et al.(2021)의 결과와는 동일하지만 정현아·유순미(2021)의 결과와는 상반된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정현아·유순미(2021)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표본을 사용한 반면 본 논문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를 표본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이는 최근 기업들은 과거보다 ESG경영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이를 실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설 2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추가 자금조달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서 경영전략점수가 높은 선도형 전략일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가설 3에 대한 분석결과 ESG등급 총합과 경영전략의 변수는 각각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ESG등급 총합이 높고 선도형 전략인 경우 상호작용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정부당국과 규제기관이 경영자의 조세회피 성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제 I 장은 서론으로 구성으로 되어 있다. 제 II 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제 III 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제 IV 장은 연구모형과 표본을 구성한다. 그리고 제 V 장은 실증결과를 도출하고 해석한다. 제 VI 장은 연구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이론적 배경

1. ESG의 이론적 배경

ESG의 투자수요의 증가와 환경 및 기후변화에 의한 기업의 부담 등에 따라 ESG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상장회사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후변화 관련 주요 정보 공개 강화, 인적자본관리 및 이사회 다양성 공개 규칙을 예고함에 따라 이사회는 전반적인 ESG 위험을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SEC, 2021). 국내에서도 2020년 이후 ESG경영이 중요함에 따라 ESG의 담당실무조직 및 ESG위원회의 설치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고은(2021)은 2021년 유가증권 상장사 및 금융사 지배구조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엄격한 지배구조 수준이 요구되는 금융사를 조사하였으며, 분석 결과 ESG의 위원회 신설 속도에 비해 기업의 ESG에 대한 이해, 이사회 내 ESG의 전문성 보완, 개별 회사의 주요 ESG의 이슈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아 ESG의 문화지체현상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 경영전략의 이론적 배경

기업의 목표는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수익의 극대화다. 이에 동종 산업 내에서 타 기업과 경쟁하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자는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Treacy and Wiersema(1995)는 경영전략을 제품 선도력, 운영의 탁월함, 고객 친밀성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Miles and Snow(1978, 2003)는 크게 선도형 전략과 방어형 전략 그리고 두 전략 사이에 있는 분석형 전략으로 구분하여 경영전략을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Bentley et al.(2013)은 Miles and Snow(1978)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경영전략을 측정하여 이를 수치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선도형 전략의 특징은 신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기업의 제품라인을 빠르게 변경 및 분권화된 구조를 갖는다. 반면에 방어형 전략의 특징은 가격 경쟁력에 집중하고 제품라인을 점진적으로 변경 및 집중화된 구조를 갖는다. 두 전략 사이에 있는 분석형 전략의 경우 DeSarbo et al.(2005)은 기업의 기술, 마케팅, 경영진의 특성과 능력에 따라 선도형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고 방어형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선도형 전략과 방어형 전략기업은 명확히 구분되지만 분석형 전략기업은 기업의 환경에 따라 다른 전략을 따르는 혼합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Langfield-Smith(1997), Chenhall(2003), 최규담·김갑순·유현수(2016), 그리고 유현수·김새로나·최규담(2016)의 실증분석을 살펴보면 분석형 전략을 제외하고 선도형 전략과 방어형 전략을 구분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와 같이 선도형 전략과 방어형 전략으로 구분하여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Ⅲ.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1. 선행연구

가. ESG등급에 관한 선행연구

ESG평가지수 이전에 사용된 사회적 책임지수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책임활동(CSR)과 이익조정에 대해 분석한 연구를 보면 박준령·김요환(2017)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상장기업 중 ESG평가지수가 보고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CSR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CSR수준이 높을수록 이익조정은 감소하는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장윤지·홍철규(2020)는 CSR수준이 높은 기업은 이익조정의

규모가 크고 하향으로 이익을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CSR수준이 높은 기업 중에서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은 나쁜 기업에 비해 이익조정의 크기가 더 작고 이익은 더 높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ESG의 구성과 이익조정의 관계를 살펴보면 박광현·이주성(2017)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발생액의 질에 음(-)의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실제이익조정 가능성이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적 책임활동(CSR)과 조세회피에 대해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균봉·박수경(2019)은 CSR활동 및 종업원가치가 조세회피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하였으며, CSR활동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기업신뢰가 높은 기업일수록 조세회피를 적게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Lanis et al.(2012)는 호주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 공시수준이 공격적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적 책임 공개 수준이 공격적 조세회피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책임 공시수준이 높은 경우 조세회피 성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Lopez-Gonzalez et al.(2019)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사회 및 환경 분야에서 기업의 성과가 조세회피와 음(-)의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사회적 책임분야 중 사회 및 환경 분야의 성과가 큰 기업들의 활동이 조세회피를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조세회피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최동춘·서정록(2013)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점수의 상세항목별 조세회피 관련성을 살펴보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내부지배구조의 대용치로 대주주지분율과 외국인지분율을, 그리고 외부지배구조의 대용치로는 비정상 감사보수 및 시간을 이용하여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조은영·윤두열(2017)은 K-IFRS 적용 후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기업지배구조 요인으로 소유구조와 관련된 대주주지분율, 외국인지분율, 소액주주지분율의 변수를, 그리고 외부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대기업 여부, BIG4 회계법인 여부를 적용하여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박종일·이윤정(2022)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경영자 과신성향 및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나. 경영전략에 관한 선행연구

경영전략과 관련하여 Miles and Snow(1978, 2003)는 경영전략 유형을 기업이 제품라인을 변경하는 변화율을 기반으로 분류한다. 먼저 선도형 전략기업은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새로운 제품 시장 개척을 위해 제품라인과 기업구조의 변화가 빈번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선도형 전략기업은 성장이 빠르고 기업구조의 복잡성이 크며 이익 변동성도 큰 특징을 갖는다. 이와 달리 방어형 전략은 가격 경쟁력에 초점을 맞추어 제품라인을 점진적으로 변경하며 보다 집중화된 구조를 갖는다. 기업이 환경에 적응하는 패턴에 초점을 두어 선도형(prospector)과 방어형

(defender) 이외에도 두 유형의 중간에 있는 분석형(analyzer)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경영전략에 대해 재무적 변수를 사용한 선행연구는 Ittner et al.(1997), Higgins et al.(2015), Bentley et al.(2013), Bentley-Goode et al.(2017) 등의 연구가 있다.

Higgins et al.(2015)는 선도형 전략기업이 방어형 전략기업과 분석형 전략기업보다 조세회피를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Bentley et al.(2013)은 선도형 전략을 따르는 기업은 방어형 전략을 따르는 기업보다 분식회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Bentley-Goode et al.(2017)은 감사인의 내부통제 보고서의 품질이 선도형 전략을 구사하는 기업들의 경우에 더 낮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송보미 외(2019)는 회계전문성을 갖춘 감사위원이 존재하지 않고 금융전문성이나 감독전문성을 가진 감사위원만 존재하는 기업의 경우 선도형 경영전략을 택한 기업은 과다한 이익조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규담·김갑순·유현수(2015)는 Bentley et al.(2013)의 경영전략 측정법을 사용하여 경영전략이 조세회피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 경영전략 지수가 높아질수록 조세회피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최규담·김갑순·유현수(2017)은 상향의 실제이익조정은 경영전략지수와 양(+)의 관계를 보여주었고 선도형 전략이 다른 전략보다 상향의 실제이익조정이 높은 것을 보였다.

2. 가설설정

가. ESG등급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최근 기업은 기업가치 극대화뿐만 아니라 ESG경영에 초점을 두고 경영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는 2011년부터 기업의 ESG등급을 평가하여 공시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및 투자자들은 이를 고려하여 투자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ESG경영을 빠르게 정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ESG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Yoon et al.(2021)은 ESG성과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사회적 책임 활동의 측정치로 ESG성과를 바탕으로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국내기업의 ESG점수는 조세회피의 대용치인 BTD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좋은 사회적 책임 성과가 있는 기업의 경우 의도적으로 세무이익을 조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ESG분야 중 사회적 분야의 경우는 조세회피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기업지배 분야의 경우는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정현아·유순미(2021)는 기업의 조세납부가 ESG평가에 따라 사회적으로 기업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실제로 기업의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조세회피에서는 어떠한 행태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ESG경영은 조세회피에 양(+)의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ESG경영을 이용해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를 통해 위험 최소화 및 사회적 책임

비용 조달목적으로 조세회피가 증가한다는 Davis et al.(2016)의 주장과 일치한다. ESG경영을 확대할 경우 보여주기식 ESG경영이 시장에서 관찰할 수 없는 영역에서 오히려 내면윤리와 외면윤리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는 ESG지수를 관리하는 기업에서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가 다소 상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확인하였다. 대부분 사회적 책임 또는 ESG지수를 관리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의 이미지 또는 사회적 영향으로 인하여 조세회피 성향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외적으로 보이고 관리하는 부분에서 사회적 책임 또는 ESG지수가 높게 나타나지만 반면에 내부적으로 평가받지 않고 숨어 있는 조세회피 성향은 높게 나타나기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도 확인하였다. 종합하면 ESG등급이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각각의 부문별 상황 및 통제된 상황에서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활동이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 ESG등급이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 E(환경)등급이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S(사회)등급이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G(지배구조)등급이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경영전략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경영자는 경제 상황이나 기업의 고유한 상황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므로 본 연구는 이처럼 선도형 전략과 방어형 전략으로 구분한 Miles and Snow(1978, 2003)의 연구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특히 선도형 전략은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거나 자체적인 연구개발 노력으로 시장의 방향을 만들어 내므로 새로운 제품, 서비스,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시장을 추구한다. 이에 따라 신제품이나 신시장을 선도적으로 찾아 나서기에 항상 변화의 중심에 있고 해당 기업은 조세회피 기회를 더 가지게 된다. 제품 또한 항상 이용 가능한 대체재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부정적 여론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하기에 제품과 시장에서 위험을 선택하는 행위로 인해 조세회피에 더욱 적극적이게 될 것이다. 반면에 방어형 전략은 다양한 유형의 제품이나 서비스 영역에서 사업을 시도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역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원가를 절감하는데 관심이 많으므로 조세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경향도 있지만 평판위험 등 조세회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하는 특성이 더 크기 때문에 조세회피 기회가 주어져도 매우 소극적이게 될 것이다.

또한 추가 자금조달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서는 세금을 통한 자금 유출을 막고 내부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회피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경영전략이 조세회피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한다. 다음으로 영업현금흐름을 기준으로 추가 자금조달 가능성에 따라 경영전략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가로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2 : 경영전략이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 경영전략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은 추가 자금조달 가능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기업의 근본적인 목표는 기업가치의 극대화이므로 환경, 사회 및 기업지배구조 측면을 모두 고려한 ESG경영은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경영자는 동종 산업 내에서 타 기업과 경쟁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SG경영을 하는 기업에서 경영자의 경영전략 선택에 따라 조세회피를 강화할지 아니면 완화할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3 : ESG등급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은 경영전략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IV. 연구설계

1. 변수의 측정

가. 조세회피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Desai and Dharmapala(2006)에 따라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중에서 발생액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의 값을 조세회피로 측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다음 식(1)에서는 실제치와 예상치의 차이인 잔차 값을 조세회피 측정치로 사용하였다.¹⁾

$$BTD_{i,t} = \beta_1 TA_{i,t} + \epsilon_{i,t} \quad \text{식(1)}$$

따라서,

BTD : (회계이익 - 세무이익) / 총자산

회계이익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세무이익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법인세부담액 / 법인세율²⁾

법인세부담액 = 법인세비용 + (이연법인세자산변동분) - (이연법인세부채변동분)

TA : 총발생액(당기순이익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기초총자산

ϵ : 잔차, 조세회피 측정치

1) 본 연구는 Yoon et al.(2021), 정현아와 유순미(2021)의 연구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이와 동일하게 Desai and Dharmapala(2006)에서 사용한 BTD 잔차를 조세회피 측정치로 사용한다.

2) 연도별 법정세율로 나누어 추정과세소득(법인세부담액)을 계산한다.

나. ESG등급의 측정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11년 환경 및 사회 부문을 추가하여 관리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7개 등급(S, A+, A, B+, B, C, D)으로 구분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등급을 공시하고 있다. ESG요소를 구체적으로 보면, 환경부문의 평가 구성은 환경경영, 환경성과, 이해관계자 대응이며, 사회부문의 평가구성은 근로자, 협력사 및 경쟁사, 소비자, 지역사회이고, 지배구조 부문은 주주권리 보호, 이사회, 감사기구, 공시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ESG등급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선정한다. 그리고 사회, 환경, 지배구조 부문에서 S등급은 7점, D등급에는 1점을 각각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1점부터 7점으로 측정하여 평가한다.

다. 경영전략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경영전략의 측정치에 대해 Miles and Snow(1978, 2003)에서 제시하는 연구방법론에 따라 Bentley et al.(2013)과 Bentley-Goode et al.(2017)에서 측정한 방법으로 경영전략 점수를 측정하고, 총점수를 크게 2분류로 선도형 전략과 방어형 전략으로 구분한다. 측정 방법은 재무적 데이터와 비재무적 데이터를 사용하여 6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합산하여 경영전략 점수를 측정한다.

- (1) 신제품 개발(new product development)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
- (2) 마케팅 노력(marketing effort) : 매출액 대비 판매비의 비율
- (3) 성장률 패턴(growth pattern) : 매출액 증가율
- (4) 생산효율성(production efficiency) : 매출액 대비 종업원 수의 비율
- (5) 자본집약도(capital intensity) : 총자산 대비 설비자산의 비율
- (6) 조직 안정성(organizational stability) : 총 종업원 수의 표준편차

경영전략의 점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보면, 매 기업-연도별로 위의 6가지 비율을 측정한 후 5년간의 평균값을 산출하고 산업별로 각 기업-연도의 6가지 측정치를 5분위로 나눈다(KSIC 중분류 기준). 그 후 각 기업-연도별로 6개의 등수를 합하여 경영전략 점수를 계산한다. 즉, 각 기업-연도의 경영전략 점수는 최대 30점(6개의 측정치가 모두 20% 이내인 경우 : 5점×6가지=30점), 최소 6점(6개의 측정치가 모두 80% 이상인 경우 : 1점×6가지=6점)을 갖게 된다.

또한, 질적 속성을 통해 측정된 경영전략 지수가 신뢰성 있게 설명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6가지 요소에 대하여 Cronbach's alpha test를 실행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경영전략 지수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0.718로 각 요소에 대한 신뢰도가 적절한 수준이다.

6가지로 분야에서 계산된 점수의 합을 바탕으로 측정된 경영전략 점수가 23점 이상 30점 이하이면 선도형 전략기업으로 분류하고, 6점에서 13점 이하 사이면 방어형 전략기업으로 정의하

여 선도형 전략기업과 방어형 전략기업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설정한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의 가설1을 검증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는 조세회피 대응치를 사용하고, 독립변수는 ESG등급 총합 및 ESG등급 산술평균값, 각각의 ESG등급으로 측정하였으며 이는 식(2)와 같다. ESG등급이 높을수록 조세회피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계수 값은 음(-)의 값으로 기대된다.

$$TS_{i,t} = \beta_0 + \beta_1 ESG(T,A)_{i,t}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ROA_{i,t} + \beta_5 MTB_{i,t} + \beta_6 OCF_{i,t} + \beta_7 RND_{i,t} + \beta_8 TI_{i,t} + \beta_9 INTI_{i,t} + \sum Y + \sum I + \epsilon_{i,t} \quad \text{식(2)}$$

따라서,

TS : Desai and Dharmapala(2006)가 제시한 모형의 잔차값

ESGT : 각각의 ESG등급의 총합

ESGA : 각각의 ESG등급의 총합의 산술평균값

ESG : E(Environment Score) : 환경활동지수

: S(Social Score) : 사회책임지수

: G(Governance Score) : 지배구조지수

SIZE :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LEV : 기초총자산 대비 총부채비율

ROA : 기초총자산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

MTB : 시장가치 대비 장부가치 비율

OCF : 기초총자산 대비 영업활동현금흐름 비율

RND : 기초총자산 대비 연구개발비용 비율

TI : 기초총자산 대비 유형자산 비율

INTI : 기초총자산 대비 무형자산 비율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업규모(SIZE), 부채비율(LEV), 총자산순이익율(ROA), 시장가치비율(MTB), 영업현금흐름(OCF), 연구개발비(RND), 유형자산비율(TI), 무형자산비율(INTI)을 연구모형에 사용한다.

먼저, 기업규모(SIZE)는 총자산에 자연로그값으로 측정하고, Stickney and McGee(1982)에 따라 기업규모가 클수록 투자 등 자금확보를 위하여 조세회피를 이용한 수단과 방법이 다양하므로 조세회피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채비율(LEV)은 총부채를 기초총자산으로 나누어 측정하였고, Graham and Tucker(2006)에 따라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이자부담 등으로 인하여 회계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조세회피의 유인도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총자산순이익율(ROA)은 당기순이익을 기초총자산으로 나누어 측정하고, Chen et al.(2010)에 따라 기업의 수익성이 높으면 경영자는 조세부담의 증가로 인하여 자금유출에 대한 압박을 받을 것이며, 조세회피의 성향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Ashbaugh et al.(2003)은 영업현금흐름

(OCF)이 현금 유출을 줄이면서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할 수도 있다고 보았으므로 통제변수에 포함한다. 그리고 김상명·박성욱·정희선(2019)은 연구개발비(RND)의 경우에도 연구개발세액공제의 혜택으로 조세회피가 감소할 수 있고 자산과 비용을 선택함에 따른 조세회피 유인을 통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다음 유형자산비율(TI)은 유형자산을 총자산으로 나누어 측정한다. Stickney and McGee(1982)에 의하면 기업의 유형자산 비중이 크면 감가상각비의 비용처리 부분과 투자세액공제를 통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조세회피의 성향은 강하게 나타난다. 즉 유형자산비율이 높은 경우 감가상각의 비용처리 금액이 증가할 것이고, 투자와 관련하여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의 혜택으로 조세의 부담이 감소하게 될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성향도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는 Miles and Snow(1978, 2003)의 연구를 바탕으로 경영전략을 선도형 전략과 방어형 전략으로 구분하며 이는 식(3)과 같다. 경영전략 총점수가 높으면 조세회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경영전략 총점수의 계수는 양(+)의 값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전략별로 구분한 경우 선도형 전략의 계수는 양(+), 방어적 전략의 계수는 음(-)의 값으로 예상된다.

$$\begin{aligned}
 TS_{i,t} = & \beta_0 + \beta_1 BS(Pros, Defen)_{i,t}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ROA_{i,t} \\
 & + \beta_5 MTB_{i,t} + \beta_6 OCF_{i,t} + \beta_7 RND_{i,t} + \beta_8 TI_{i,t} + \beta_9 INTI_{i,t} \\
 & + \sum Y + \sum I + \epsilon_{i,t}
 \end{aligned}
 \tag{3}$$

따라서,

- BS : 6개 지표를 중심으로 측정한 값(최소 6점에서 최대 30점)
 PROS : 경영전략 총 점수 중 28점 이상 점수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
 DEFEN : 경영전략 총점수 중 13점 이하 점수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

다음은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에 ESG등급의 총합과 경영전략의 상호작용변수를 사용하여 식(4)를 설정한다.

$$\begin{aligned}
 TS_{i,t} = & \beta_0 + \beta_1 ESGT_{i,t} + \beta_2 ESGT \times BS_{i,t} + \beta_3 BS_{i,t} + \beta_4 SIZE_{i,t} + \beta_5 LEV_{i,t} \\
 & + \beta_6 ROA_{i,t} + \beta_7 MTB_{i,t} + \beta_8 OCF_{i,t} + \beta_9 RND_{i,t} + \beta_{10} TI_{i,t} \\
 & + \beta_{11} INTI_{i,t} + \sum Y + \sum I + \epsilon_{i,t}
 \end{aligned}
 \tag{4}$$

3. 표본선정

본 연구의 표본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이나 실제 표본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인데 이는 경영전략은 5년치 평균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³⁾ 또한 표본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관리대상 지정종목이 아닌 비 금융업, 12월 말의 결산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법인과 12월 말 결산기업 이외의 기업은 표본에서 제외한다. 또한 세전이익이 음(-)이 아닌 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실증분석에 필요한 재무자료는 Fnguide에서 입수하였으며 한국지배구조연구원에서 평가하는 ESG등급을 사용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최종적인 표본의 크기는 2,261 기업-연도이다.

V.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량

〈표 1〉 기술통계량

Variable	Mean	Std	Min	25%	Median	75%	Max
TS	0.049	0.055	-0.035	0.017	0.035	0.064	0.732
BS	18.529	3.628	8.000	16.000	18.000	21.000	28.000
PROS	0.152	0.359	0.000	0.000	0.000	0.000	1.000
DEFEN	0.091	0.287	0.000	0.000	0.000	0.000	1.000
E	2.759	1.217	1.000	2.000	3.000	4.000	6.000
S	3.147	1.155	1.000	2.000	3.000	4.000	6.000
G	3.012	0.916	1.000	2.000	3.000	4.000	6.000
ESGT	8.919	2.556	4.000	7.000	9.000	10.000	17.000
ESGA	2.978	0.888	1.000	2.000	3.000	3.000	6.000
SIZE	27.130	1.436	23.813	26.120	26.842	27.856	33.068
LEV	0.379	0.217	0.001	0.201	0.378	0.527	2.298
ROA	0.047	0.070	-0.033	0.016	0.033	0.059	2.054
MTB	1.243	1.115	0.245	0.761	0.953	1.307	14.375
OCF	0.058	0.062	-0.383	0.022	0.053	0.088	0.481
RND	0.014	0.036	0.000	0.000	0.001	0.011	0.579
TI	-0.279	2.245	-31.656	-0.021	0.137	0.306	2.025
INTI	0.013	0.021	0.000	0.003	0.007	0.014	0.301

3) 예를 들면 2015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경영전략의 평균이며, 2016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평균이다.

주1) 변수의 설명

TS	: Desai and Dharmapala가 제시한 회귀모형의 잔차값
BS	: 6개 지표를 중심으로 측정한 값(최소 6점에서 최대 30점)
PROS	: 경영전략 총 점수 중 28점 이상 점수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
DEFEN	: 경영전략 총점수 중 13점 이하 점수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
ESG	: E(Environment Score) : 환경활동지수 : S(Social Score) : 사회책임지수 : G(Governance Score) : 지배구조지수
ESGT	: 각각의 ESG등급의 총합
ESGA	: 각각의 ESG등급의 총합의 산술평균값
SIZE	: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LEV	: 기초총자산 대비 총부채비율
ROA	: 기초총자산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
MTB	: 시장가치 대비 장부가치 비율
OCF	: 기초총자산 대비 영업활동현금흐름 비율
RND	: 기초총자산 대비 연구개발비용 비율
TI	: 기초총자산 대비 유형자산 비율
INTI	: 기초총자산 대비 무형자산 비율

<표 1>은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분석한 표이다. 종속변수인 조세회피(TS)의 대응치는 평균 0.049(중위수 0.035) 그리고 최대값과 최소값은 각각 -0.035와 0.732이다. 그리고 경영전략(BS)변수는 평균 18.529점(중위수 18점), 그리고 최대값과 최소값은 각각 8점, 28점이다. 또한 ESG등급은 각각 최대 S등급(7점)에서 최소 D등급(1점)까지인데 E등급은 평균 2.759, S등급은 평균 3.147, G등급은 평균 3.012이다.

2. 회귀분석결과

다음의 <표 2>는 가설 1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로 ESG등급총합(ESG등급의 산술평균)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표이다. 우선 ESG등급 총합변수의 계수는 -0.001로 음(-)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ESG등급 총합변수가 조세회피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ESG등급 총합점수가 높으면 조세회피 성향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ESG등급이 높게 평가되면 경영자의 조세회피 성향도 억제되는 등 내부통제가 잘 된다고 추측할 수 있다. 다음은 ESG등급의 산술평균값의 계수는 -0.003으로 음(-)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ESG등급 총합 산술평균변수가 조세회피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ESG등급 총합점수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통제변수를 보면, 기업규모(SIZE), 총자산순이익율(ROA), 시장가치비율(MTB), 영업현금흐름(OCF)은 유의한 양(+)의 계수 값을 보인다. 이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총

자산순이익율이 높을수록, 시장가치비율이 높을수록, 영업현금흐름이 클수록 조세회피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정현아·유순미(2021)는 ESG경영은 조세회피와 양(+)의 관련성이 있고 이는 ESG경영을 이용해 위험 최소화 및 사회적 책임 비용 마련을 위해 조세회피가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상반되는데 정현아·유순미(2021)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표본을 사용하였고 본 논문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를 표본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추정되고 이는 최근 기업들은 과거와 달리 ESG경영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ESG경영을 실행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2> ESG등급총합(ESG등급의 산술평균)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가설 1]

Variable	ESG등급총합		Variable	ESG등급의 산술평균	
	Estimate	t-value		Estimate	t-value
Intercept	0.270	0.264	Intercept	0.306	0.300
ESGT	-0.001	-2.256**	ESGA	-0.003	-1.937**
SIZE	0.004	4.133***	SIZE	0.003	3.961***
LEV	0.000	-0.101	LEV	0.000	-0.115
ROA	0.470	36.876***	ROA	0.470	36.870***
MTB	0.005	6.726***	MTB	0.005	6.731***
OCF	0.152	10.455***	OCF	0.152	10.416***
RND	0.012	0.487	RND	0.011	0.439
TI	0.000	0.964	TI	0.000	0.978
INTI	-0.038	-0.865	INTI	-0.040	-0.919
YEAR	Included		YEAR	Included	
INDUSTRY			INDUSTRY		
Adj_R ²	Durbin-Watson	F-value	Adj_R ²	Durbin-Watson	F-value
0.473	1.988	185.458	0.473	1.988	185.227

주1) 변수의 설명은 <표 1>의 내용을 참조

주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

또한 아래의 <표 3>은 개별 ESG등급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표이다.4) E등급의 계수는 음(-)값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G등급의 계수는 양(+)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S등급의 경우 계수는 유의적인 음(-)의

4) E,S,G를 모형에 각각 넣고 분석을 하였을 때도 결과상 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값을 보인다. 즉, S등급 변수가 조세회피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수가 높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지배 분야(G)의 경우 유의적 양(+)의 결과가 나온 Yoon et al.(2021)의 연구와 다소 다르다. 한편, 통제변수의 경우 앞의 <표 2>의 결과와 질적으로 유사하기에 독립변수만을 제시한다.

<표 3> ESG등급별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가설 1-1]

Variable	Estimate	t-value	p-value
Intercept	-0.402	-0.351	0.726
E	-0.001	-1.021	0.307
S	-0.004	-2.909***	0.004
G	0.000	0.165	0.869
YEAR	Included		
INDUSTRY			
Adj_R ²	Durbin-Watson		F-value
0.475	1.990		147.323

주1) 변수의 설명은 <표 1>의 내용을 참조

주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

다음으로 <표 4>는 가설 2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로 경영전략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표이다. 경영전략변수의 계수는 0.001로 양(+)의 값으로 보여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즉, 경영전략변수가 조세회피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선도형 전략을 실시할수록 경영전략점수가 높고 이는 조세회피 성향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경영자가 선도형 전략을 실시할 경우, 더 많은 투자와 내부자금 확보 등을 할 유인이 강할 것이고 이를 위해 조세회피를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통제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규모(SIZE), 총자산순이익율(ROA), 시장가치비율(MTB), 영업현금흐름(OCF)은 양(+)의 유의한 계수 값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기업규모가 클수록, 총자산순이익율이 높을수록, 시장가치비율이 높을수록, 영업현금흐름이 클수록 조세회피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표 4〉 경영전략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가설 2]

Variable	Estimate	t-value	p-value
Intercept	0.346	0.342	0.733
BS	0.001	2.624***	0.009
SIZE	0.002	3.227***	0.001
LEV	-0.001	-0.196	0.845
ROA	0.468	36.631***	0.000
MTB	0.005	6.347***	0.000
OCF	0.151	10.417***	0.000
RND	-0.011	-0.445	0.657
TI	0.000	1.084	0.278
INTI	-0.046	-1.067	0.286
YEAR	Included		
INDUSTRY			
Adj_R ²	Durbin-Watson		F-value
0.473	1.991		185.769

주1) 변수의 설명은 <표 1>의 내용을 참조

주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

또한 아래의 <표 5>는 Miles and Snow(1978, 2003)에 따라 경영전략을 선도형 전략과 방어형 전략으로 구분하여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표이다.⁵⁾ 선도형 전략변수의 계수는 0.00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나며, 반면에 방어형 전략변수의 계수는 -0.0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인다. 즉, 경영전략변수가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선도형 전략인 경우 조세회피 성향이 증가하고 있으나 방어형 전략의 경우 조세회피 성향이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통제변수의 경우 앞의 <표 4>의 결과와 질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독립변수만을 제시한다.

5) PROS와 DEFEN을 모형에 각각 넣고 분석을 하였을 때도 결과상 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표 5〉 선도형 전략과 방어형 전략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가설 2]

Variable	Estimate	t-value	p-value
Intercept	0.411	0.407	0.684
PROS	0.006	2.437**	0.015
DEFEN	-0.005	-1.769*	0.077
YEAR	Included		
INDUSTRY			
Adj_R ²	Durbin-Watson		F-value
0.474	1.996		170.708

주1) 변수의 설명은 <표 1>의 내용을 참조

주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

그리고 아래의 <표 6>은 가설 2-1에 따라 경영전략이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기업의 추가 자금조달 가능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영업현금흐름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추가 자금조달 가능성이 낮은 그룹의 경우, 경영전략변수의 계수는 양(+)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그러나 추가 자금조달 가능성이 높은 그룹의 경우 경영전략변수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0.001로 양의 값(+)으로 나타난다. 이는 추가 자금조달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서 경영전략점수가 높을수록 즉, 선도형 전략일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추가 자금조달 필요성이 높은 기업에서 선도형 전략을 실행하는 기업일수록 세금을 통한 현금 유출을 막기 위해 조세회피 성향이 증가할 것을 증명하였다. 한편, 추가자금조달 가능성이 높은 그룹의 통제변수의 경우 <표 4>의 결과와 질적으로 유사하나 부채비율(LEV)과 무형자산비율(INTI)은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다.

〈표 6〉 자금조달 관련한 경영전략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가설 2-1]

Variable	추가 자금조달 가능성이 낮은 그룹		Variable	추가 자금조달 가능성이 높은 그룹	
	Estimate	t-value		Estimate	t-value
Intercept	0.510	0.390	Intercept	-0.400	-0.266
BS	0.000	0.961	BS	0.001	2.307**
SIZE	0.001	1.655*	SIZE	0.003	3.556***
LEV	0.007	1.436	LEV	-0.020	-3.064***
ROA	0.616	34.108***	ROA	0.389	22.412***
MTB	0.001	0.545	MTB	0.013	9.508***

〈표 6〉 자금조달 관련한 경영전략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가설 2-1] (계속)

Variable	추가 자금조달 가능성이 낮은 그룹		Variable	추가 자금조달 가능성이 높은 그룹	
	Estimate	t-value		Estimate	t-value
RND	0.013	0.466	RND	-0.050	-1.095
TI	0.000	0.400	TI	0.001	1.080
INTI	0.056	0.890	INTI	-0.160	-2.646***
YEAR	Included		YEAR	Included	
INDUSTRY			INDUSTRY		
Adj_R ²	Durbin-Watson	F-value	Adj_R ²	Durbin-Watson	F-value
0.512	1.926	119.633	0.416	1.938	81.472

주1) 변수의 설명은 <표 1>의 내용을 참조

주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

또한 아래의 <표 7>은 영업현금흐름을 기준으로 추가 자금조달 필요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선도형 전략과 방어형 전략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한다. 추가 자금조달 가능성이 낮은 그룹의 경우, 선도형 전략과 방어형 전략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그러나 추가 자금조달 가능성이 높은 그룹의 경우 경영전략변수를 사용한 <표 6>과 유사하게 선도형 전략변수의 계수가 0.009로 유의적인 양(+)의 값을 나타낸다. 이는 추가 자금조달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서 경영자가 선도형 전략을 펼칠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통제변수의 경우 앞의 <표 6>의 결과와 질적으로 유사하다.

〈표 7〉 자금조달 관련한 유형별 경영전략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가설 2-1]

Variable	추가 자금조달 가능성이 낮은 그룹		Variable	추가 자금조달 가능성이 높은 그룹	
	Estimate	t-value		Estimate	t-value
Intercept	0.542	0.415	Intercept	-0.283	-0.190
PROS	0.003	1.046	PROS	0.009	2.184**
DEFEN	-0.004	-0.957	DEFEN	-0.005	-1.119
YEAR	Included		YEAR	Included	
INDUSTRY			INDUSTRY		
Adj_R ²	Durbin-Watson	F-value	Adj_R ²	Durbin-Watson	F-value
0.512	1.926	108.910	0.416	1.937	74.184

주1) 변수의 설명은 <표 1>의 내용을 참조

주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

다음으로 <표 8>은 가설 3에 대한 결과로서 ESG등급 총합과 경영전략의 상호작용효과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ESG등급 총합변수의 계수는 -0.002 로 유의한 음(-)의 값, 반면에 경영전략변수의 계수는 0.001 로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ESG등급 총합변수와 경영전략변수의 상호작용효과의 계수는 0.000 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는 ESG등급 총합과 경영전략변수 각각의 변수는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ESG등급 총합이 높고 선도형 전략인 경우에 상호작용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수의 경우 <표 6>의 결과와 질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독립변수만을 제시한다.

<표 8> ESG등급 총합과 경영전략과의 상호작용효과 [가설 3]

Variable	Estimate	t-value	p-value
Intercept	-0.530	-0.480	0.632
ESGT	-0.002	-3.040***	0.002
BS×ESGT	0.000	0.405	0.685
BS	0.001	2.678***	0.007
YEAR	Included		
INDUSTRY			
Adj_R ²	Durbin-Watson		F-value
0.426	2.009		128.224

주1) 변수의 설명은 <표 1>의 내용을 참조

주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

3. 추가분석

한편, 앞서 유의적인 상호작용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ESG등급을 구분한다. 이에 따라 ESG등급 총합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ESG등급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으로 구분하여 ESG등급에 따라 경영전략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의 <표 9>를 보면 ESG등급이 낮은 그룹의 경우 경영전략변수의 계수는 양(+)의 값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반면에 ESG등급이 높은 그룹의 경우 경영전략변수의 계수가 0.001 로 유의적인 양(+)의 값을 보인다. 이는 ESG등급이 높을지라도 선도형 경영전략을 사용할 경우 조세회피 성향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통제변수의 경우 <표 6>의 결과와 질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독립변수만을 제시한다.

〈표 9〉 ESG등급별 경영전략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Variable	ESG등급이 낮은 그룹		Variable	ESG등급이 높은 그룹	
	Estimate	t-value		Estimate	t-value
Intercept	0.053	0.042	Intercept	0.284	0.198
BS	0.000	0.704	BS	0.001	2.592**
YEAR	Included		YEAR	Included	
INDUSTRY			INDUSTRY		
Adj_R ²	Durbin-Watson	F-value	Adj_R ²	Durbin-Watson	F-value
0.644	1.915	185.091	0.400	2.026	69.964

주1) 변수의 설명은 <표 1>의 내용을 참조

주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

VI. 결 론

본 연구는 ESG등급과 경영전략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최근 기업에서는 내부통제보다 ESG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경영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ESG등급이 높은 기업에서는 낮은 기업에 비해 조세회피를 적게할 것이며 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관리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지배구조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ESG등급이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 또한 본 연구는 Miles and snow(1978, 2003)의 경영전략을 바탕으로 선도형 및 방어형 경영전략을 구분하여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ESG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ESG등급이 조세회피에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선행연구 중 Yoon et al.(2021)의 결과와는 같지만 정현아·유순미(2021)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된다. 본 논문에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를 표본으로 사용하였으나 정현아·유순미(2021)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표본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는 2015년 이후 기업들이 ESG경영을 중시하여 경영하는 것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나아가 ESG등급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사회적 책임부분에 있어 조세회피에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보인다. 이는 사회적 책임부분을 중시하는 기업의 경우 조세회피를 줄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경영전략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선도형 전략은 조세회피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반대로 방어형 전략은 조세회피에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친다.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본 연구에서는 더 나아가 자금조달 관련하여 경영전략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분석결과, 추가 자금조달 가능성이 높은

그룹에서 선도형 전략을 사용하는 기업은 조세회피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ESG등급과 경영전략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추가적으로 ESG등급을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고 경영전략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ESG등급이 높은 집단에서는 선도형 전략이 조세회피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ESG등급이 높을지라도 선도형 전략을 실시할 경우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정부당국, 규제기관,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상명 · 박성욱 · 정희선. 2019. 경영자의 자기과신 성향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20권 제6호 : 35-61.
- 박광현 · 이주성. 2017.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회계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 발생액의 질과 실이익조정을 중심으로. 회계와 정책연구. 제22권 제4호 : 49-81.
- 박종일 · 이운정. 2022. 경영자 과신성향 및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 ESG 평가를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제39권 제1호 : 9-59.
- 박준령 · 김요환. 2017.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이익조정과의 실증분석 -Kospi기업과 Kosdaq 기업의 비교분석-. 국제회계연구. 제72집 : 187-205.
- 송보미 · 안혜진 · 최규담 · 유현수. 2019. 이익조정, 경영전략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국제회계연구. 제88집 : 201-229.
- 유현수 · 김새로나 · 최규담. 2016. 기업의 경영전략에 따른 보수적 회계처리의 차이에 관한 실증연구. 회계학연구. 제41권 제4호 : 113-164.
- 유고은. 2021. ESG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11권 제10호 : 13-20.
- 이균봉 · 박수경. 2019. CSR활동으로 구축한 기업신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제34권 제1호 : 311-339.
- 장윤지 · 홍철규. 2020. 기업 지배구조와 사회적책임활동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 · 세무와 감사 연구. 제62권 제3호 : 227-259.
- 정현아 · 유순미. 2021. ESG경영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제36권 제6호 : 119-144.
- 조은영 · 윤두열. 2017. 기업지배구조와 조세회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K-IFRS 도입 전후 비교-. 조세연구. 제17권 제3집 : 281-305.
- 최규담 · 김갑순 · 유현수. 2015. 경영전략과 조세회피. 회계학연구. 제40권 제5호 : 1229-1296.
- _____. 2016. 경영전략과 발생액의 질. 회계저널. 제25권 제3호 : 261-305.
- _____. 2017. 경영전략과 이익조정. 회계학연구. 제42권 제1호 : 1-62.
- 최동춘 · 서정록. 2013. 기업지배구조와 조세회피의 관계. 회계와 정책연구. 제18권 제1호 : 1-27.
- Ashbaugh, H, R. LaFond, and B. Mayhew. 2003. Do Non-Audit Services Compromise Auditor Independence? Further Evidence. *The Accounting Review* 78 : 611-639.
- Bentley, K. A., Omer, T. C., and N. Y. Sharp. 2013. Business strategy, audit fees and financial reporting irregularitie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30(2) : 780-817.
- Bentley-Goode, K. A., Newton, N. J., & Thompson, A. M. 2017. Business strategy,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and audit reporting quality.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36(4) : 49-69.

- Chen, S., Chen, X., Cheng, Q., and Shevlin, T. 2010. Are family firms more tax aggressive than non-family firm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95(1) : 41–61.
- Chenhall, R. H. 2003. Management Control Systems Design within Its Organizational Context : Findings from Contingency-Based Research and Directions for the Future.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28 (2/3) : 127–168.
- Davis, A., L. Krull, and B. Williams. 2016. Do Socially Responsible Firms Pay More Taxes? *The Accounting Review* 91 : 47–68.
- DeSarbo, W. S., Anthony Di Benedetto, C., Song, M., & Sinha, I. 2005. Revisiting the Miles and Snow strategic framework : uncovering interrelationships between strategic types, capabilities, environmental uncertainty, and firm performanc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6(1) : 47–74.
- Desai, M. A., & Dharmapala, D. 2006. Corporate tax avoidance and high-powered incentiv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9(1) : 145–179.
- Graham, J. R., and Tucker, A. L. 2006. Tax shelters and corporate debt policy.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1(3) : 563–594.
- Higgins, D., Omer, T., and J. Phillips. 2015. The influence of a firm's business strategy on its tax aggressivenes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32(2) : 674–702.
- Ittner, C.D., D. F. Larcker, and M.V. Rajan. 1997. The choice of performance measures in annual bonus contracts. *The Accounting Review* 72(2) : 231–255.
- Lopez-Gonzalez, E., Martínez-Ferrero, J., García-Meca, E. 2019. Do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ffect tax avoidance : Evidence from family firm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26(4) : 819–831.
- Langfield-Smith, K. 1997. Management control systems and strategy : a critical review.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22(2) : 207–232.
- Lanis, R., & Richardson, G. 2012.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ax aggressiveness : 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31(1) : 86–108.
- Miles, R.E., and C.C. Snow. 1978. Organizational strategy, structure and process. New York, NY : McGraw-Hill.
- Miles, R. E, and C. C. Snow. 2003. Organizational strategy, structure, and process. Stanford, CA : Stanford University Press.
- Stickney, C. P., & McGee, V. E. 1982. Effective corporate tax rates the effect of size, capital intensity, leverage, and other factors.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1(2) : 125–152.
- SEC. 2021. Prepared Remarks Before the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Climate and

Global Financial Markets” Webinar(2021.7.28.).

Treacy, M., and Wiersema, F. 1995. How market leaders keep their edge. *Fortune* 131(2) : 52 – 57.

Yoon, B., Lee, J. H., & Cho, J. H. 2021. The Effect of ESG Perfrmance on Tax Avoidance – Evidence from Korea. *Sustainability* 13(12) : 6729.

ESG, Business Strategy, and Tax Avoidance

Yong Ki Kim* · Sung Ook Park** · Seo Hyun Kim***

〈Abstract〉

Recently, the concept of ESG management has gradually established its place in consideration of the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In addition, for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a company, how managers set and promote business strategies is very important.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ESG ratings and business strategies on tax avoidance based on the ESG grade provided by the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and business strategies by Miles and Snow(1978, 2003) from 2015 to 202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When examining the effect of the ESG grade on tax avoidance, we find that the comprehensive ESG grade and the social responsibility variable grade have a negative effect on tax avoidance. Since companies that actively perform ESG management operate in consideration of the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we discover that tax avoidance behavior is suppressed in consideration of reputation ; as a result of analyzing subcategories, it was confirmed that the tax avoidance tendency is mainly related to the social responsibility index.

Second, we find that the prospector business strategy has a positive effect on tax avoidance, and the defender business strategy has a negative effect on tax avoidance. As a result of additional analysis of companies with high level of additional financing, it was confirmed that prospector business strategies have a positive effect on tax avoidance.

Third, looking at the effect of business strategy and ESG rating on tax avoidance, the interaction effect was not significant. When dividing ESG grades into high and low groups for analysis, companies of high ESG grades have a stronger tendency to avoid tax when they adopt prospector business strategies than those that do not. This implies that even though companies incorporate ESG management, the acceptance of the prospector business strategy tends to increase the level of tax avoidance.

In contrast to prior research, this study finds a different relation between ESG rating and tax

* Ph.D., Department of Accounting and Taxation, School of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Tax Accountant, tax7153@naver.com, First Author

** Professor, Department of Accounting and Taxation, School of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sopark@khu.ac.kr, Corresponding Author

*** Ph.D. Student, Department of Accounting and Taxation, School of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ksh2019@khu.ac.kr, Co-author

avoidance. In addition, through the categorization of level of additional financing, we analyze the effect of business strategy on tax avoidance. Using this finding, the government and regulatory agencies can estimate the tendency of tax avoidance. This also provides useful information for investors and interested parties in making decisions.

〈Key words〉 ESG, business strategy, prospector, defender, tax avoidance